

기대 못 미치는 e심… “기본 회선 사용 가능해야 활성화”

(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e심 서비스 지원되는 폰 적어
번호이동 건수, 큰 폭으로 감소
해외에서는 모 회선으로 이용

e심(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서비스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가입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아직 까지 e심이 지원되는 폰이 9월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폰은 갤럭시Z폴드·플립 2종, 아이폰은 아이폰 11~14 시리즈와 아이폰XS, 아이폰XR, 아이폰 SE 2세대 및 3세대에 그치고 있다. e심 서비스가 지원되는 폰이 적다는 점이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고 있다.

특히 현재는 이동통신사에서 e심을 보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기 힘든 데, 이를 기본 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e심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초 한 대의 폰으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e심 상용화로 번호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큰 폭으로 줄



갤럭시Z폴드·플립에서는 e심이 지원된다. 서울 서초구 딜라이트에 전시돼 있는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폴드4'의 모습.

LG유플러스 관계자는 “e심 요금제 가입자수는 일반 요금제랑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며 “이는 e심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은 아이폰 이용자나 갤럭시 신제품 가입자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KT는 e심 요금제 가입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KT는 지난 9월 1일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번호로 통화, 문자,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듀얼번호’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는데, 지난 10월 11일 듀얼번호 및 듀얼 번호 라이트 가입 고객이 2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듀얼번호 서비스는 e심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상품이며, 듀얼번호 라이트는 e심은 사용하지 않고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KT는 연내에 50만 고객이 듀얼번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중고 거래, 주차 등 내 실재 번호를 공개하기 난감한 상황일 때 듀얼번호를 쓰면 편리하다는 에피소드 형태의 KT 듀얼번호 광고는 유튜브 조회수 1700만을 넘겼다”며 “스마트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업무와 일상 분

리, 개인번호 보호 등 듀얼번호의 장점에 대한 글도 다수 게재되고 있다. 실제 듀얼번호는 짧은 층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전체 듀얼 상품 가입자 중 50%가 20, 30대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가입이 미흡한 e심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이통사에서 모 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통 3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e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e심 요금제는 유심으로 가입한 모 회선에 추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통사들은 월 8800원만 내면 소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전화·문자는 모 회선 제공량을 공유해쓰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e심 서비스가 2번째 번호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e심 제도가 보조용으로 서비스되는 ‘듀얼요금제’에 국한돼 있어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e심이 단지 2번째 번호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모 회선으로도 이용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정기선, 사우디 장관 만나 협력 논의

(HD현대 대표)

협력사업 진척상황·일정 점검
‘사우디 비전 2030’ 관련 협력

정기선 HD현대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나 협력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인 HD현대 정기선 대표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과 만나 사업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눴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만남에서 정기선 대표와 칼리드 알팔레 장관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사우디 아람

(투자부)

코와 추진 중인 합작조선소와 엔진합작사 등 협력사업의 진척상황과 일정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할 미래 프로젝트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 두 사람은 차세대 에너지 등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해 협력 기회를 더욱 넓혀나가기로 했다.

정기선 대표는 “사우디와의 협력관계는 사우디 산업발전과 그룹의 성장을 함께 이루며 오랫동안 지속,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사우디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칼리드 알팔레 장관은 “정기선 대표와의 이번 만남을 통

해 HD현대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더욱 돋구는 계기가 됐다”면서 “HD현대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HD현대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협력사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호반그룹·대한전선도 알팔레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양측은 대한전선의 사우디 초고압케이블 생산 법인을 포함해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알팔레 장관은 “사우디 전력망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구축해 온 대한전선이 이번 투자를 통해 공급망 허브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정기선 HD현대 대표와 사우디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했다.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은 “해외에 처음 짓는 초고압케이블 공장이 만큼, 경쟁력 축적과 사우디 사업 확대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도 “전력망 인프라뿐 아니라 호반그룹 전문 영역인 건설, 토목 분야에서도 투자와 협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U+, 현대차그룹 車에 무선통신 공급

전담 운영조직 신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그룹 브랜드 제네시스·현대차·기아 차량에 무선 통신 회선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3년부터 현대차동차그룹에 무선통신 회선을 제공했으며, 2019년부터 기아 일부 차종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내년부터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네시스·현대차·기아 전차종에서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현대차동차그룹 전용으로 이원화된 통신인프라를 구축했으며, 365일/24시간 무중단·무사고를 위한 통신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전담 운영조직을 신설하고 커

넥티드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로 최상의 품질을 갖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온도·진동·먼지·습기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차량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장부품 인증 규격(AEC-Q100)을 획득한 eUICC(embedded 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를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소프트웨어 개발협력생태계 컨소시엄’에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웨플랫폼 선도기업으로 비고에 지분투자를 단행하는 등 커넥티드 카 생태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차량 내에 서 즐길 수 있는 AI음성인식기반 U+D

rive 서비스로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을 수상했으며, 자사 특화 콘텐츠인 교육(아이들나라)/스포츠플랫폼(스포카)/엔터테인먼트(아이돌플러스) 등을 차량용 서비스로 개발하고 있다.

또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현대 블루링크·기아 커넥트 등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하고, 다양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내년부터 생산될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커넥티드 카 차량에서 고객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빼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OTA 업데이트 서비스를 위한 특화 네트워크 자원 할당 ▲고품질 스트리밍 서비스 트래픽 관리 등 기술적 준비를 마쳤다.

/채윤정 기자

KT “나만의 AI 목소리 만들어 보세요”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지원

KT는 나만의 AI(인공지능) 목소리를 만드는 ‘마이AI보이스’를 출시했다.

30개 문장만 녹음하면 내 목소리와 똑같은 AI 목소리가 제작되며,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까지 지원된다.

13일 KT에 따르면 ‘마이AI보이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고(故) 유상철 감독의 목소리를 복원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누구나 손쉽게 AI 보이스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KT ‘AI 보이스 스튜디오’에서 새로 출시한 ‘마이AI보이스’는 30개 예시 문장만 녹음하면 내 목소리와 닮은 AI 보

이스를 만들어 준다. AI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자신의 육성으로 AI 목소리를 제작할 수 있으며 우리말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분야에서도 투자와 협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보이스 스튜디오에는 KT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AI 기반 음성합성 분야 스타트업 퓨얼로와 협업한 ‘퓨얼러닝’ 기술이 적용됐다. 퓨얼러닝은 AI가 소량의 데이터 자원만 학습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5분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녹음한 음성 데이터로도 고품질의 AI 보이스를 생성함으로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